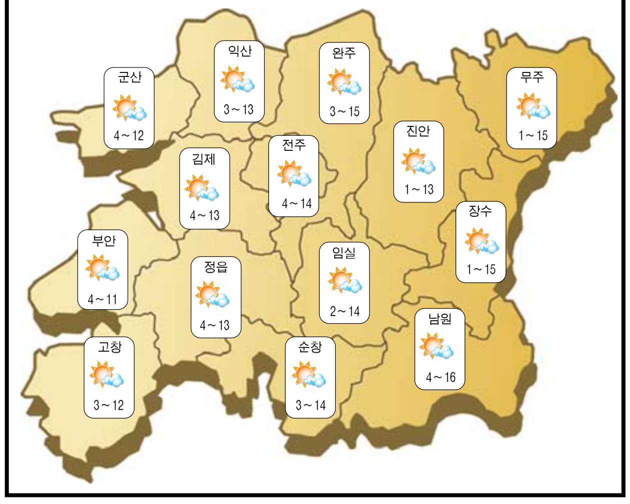
하나로 뭉쳐 로고 표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국토 · 공간정보의 전문기관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16년 관리자워크숍'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문경시 농암면 STX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워크숍에 참여한 김영호 사장과 임직원들이 공사의 로고인 LX를 표현하고 있다.

3월 23일 수요일 해뜸 06:31 | 해짐 18:46 달뜸 18:36 | 달짐 06:19

날씨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11~15도



항공대대 이전지역 주민들과 소통강화

전주시, 도도마을 주민 이주대책 마련 · 주변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지역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 보상방안 및 다양한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소외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항공대대가 위치한 전주시 북부권 개발은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중추적인 사업이자, 이 일대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각종 보상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지난 2014년까지 항공대대의 임실 6탄약창 이전을 추진하면서 임실군에 제시했던 총 지원예산 230억원을 상당히 웃도는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시는 도도마을에 대해서는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등의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도도마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근접 토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지역인 주변경관을 고려해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의 일정범위 토지를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영농체험과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경관농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을 포함해 항공대대 이전지에 인접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 · 개축 등 환경개선, 도로정비, 상수도공급 등 그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굴하는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또, 그간 도도마을 주민들과 김제, 익산 등 주변마을 주민 대표들과 각각 수차례 대화를 통해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주시의 사정에 대한 이해를 구해왔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고, 추진한 행정절차에서도 부족한 사항은 없으나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대책 강구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도내 115개 다문화 정책학교 선정

60개 다꿈사랑방학교 · 14개 다꿈키움학교 등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100여개 학교를 다문화 정책학교로 선정하는 등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중앙유치원과 진안마이꿈유치원을 비롯해 5개 유치원과 20개 유치원이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꿈키움 · 다꿈사랑방유치원으로 각 선정됐다.

이들 유치원은 다문화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신장 지원은 물론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전주금암초와 군산서해초, 익산어양초 등 14개 학교는 다꿈키움학교로, 전주반월초 등 8개 학교는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다꿈준비학교로 선정했다.

또 52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등 총 60개 학교가 다꿈사랑방학교로 지정했다.

이처럼 다문화 연구학교 3개 학교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선정된 학교는 도내 115개 학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400만~500만원씩 지원해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비다문화가정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아리 구성 등 학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다문화 관련 아버지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장애학생해외체험학습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장애 학생들의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애 학생 해외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해외체험학습은 상 · 하반기(5 · 10월)로 나눠 추진되며, 장애학생과 학부모 각각 30명씩 총 60명이 중국 상해, 항주, 소주를 방문하게 된다.

특수교사와 보건교사 3명씩 총 6명이 동행한다.

참가 장애학생은 의사소통과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이며, 도교육청이 주관하거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 해외연수 · 해외 체험학습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이어야 한다.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 작년 지방세 징수액 전년비 1552억↑

9.5%p 증가한 1조 7969억… 자주재원에서 도세 점유 비중 해마다 급증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 회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2015년 전북도 지방세(도세와 시 · 군세)수 징수액이 전년대비 1,552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북도 지방세수는 1조 796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9.5%(2014년 1조 6,417억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세목은 취득세 608억원, 지방소득세 409억원, 지방소비세 124억원, 재산세 116억원, 기타 295억원 등이다.

이 중 도세의 경우 2014년 대비 836억원을 초과한 9,619억원을 징수(9,821억원 부과)해 징수율 97.9%로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도세 비중도 2013년 40%, 2014년 50%, 2015년 55.9%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세 증가 원인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31,813대로 전년대비 3.9% 증가)와 지방세 과세물건시가표준액 상승(개별공시지가 5.76%, 개별주택가격이 4.64% 으로 취득세 608억원 증가) 등을 뽑았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에서 별도의 세율체계를 갖춘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전환되면서 세수가 491억원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전국 최고의 성실납세의식에 힘입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 · 군이 합동 체납세 징수 T/F팀을 상시 운영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탈루 ·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 · 납부와 과오납금 전자 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3D프린팅 한 · 중 국제 컨퍼런스

전주시, 29일 전북대 진수당

전주시가 한 · 중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인 3D프린팅 육성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29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 3D프린팅'을 주제로 한 2016 전주 3D프린팅 한 · 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주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박광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차세대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3D프린팅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쟁력 강화,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3D프린팅 산업의 시장동향 파악 및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 신진국 센터장과 대림화학 신홍현 사장이 각각 '3D프린팅 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용분야'와 '3D 프린팅 핵심은 소재의 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 3D시스템즈코리아 백소령 본부장 등 한 · 중 3D프린팅 관련 전문가 4인의 주제발표도 이어진다. /김영재 기자